

특별  
세션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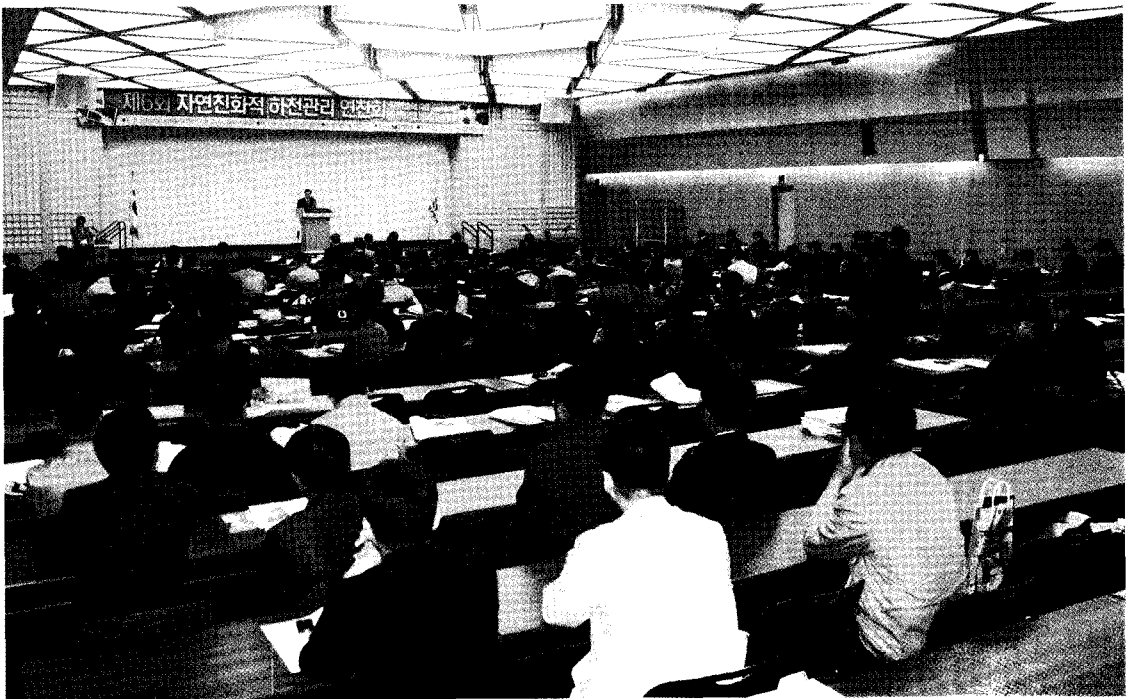
River & Culture

## 제6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 개최

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소방방재청·제주특별자치도의 후원으로 한국하천협회가 주관한 제6회 「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」가 지난 2010년 4월 26일(월) ~ 30일(금)까지 2차로 나누어 제주국제컨벤션센터(제주 서귀포시 소재)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.

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연찬회는 <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의 바람직한 방향>을 주제로 하여, 정부 및 자치단체 하천분야 공직자와 산·학·연 등 각계 관련 종사자 총 1,208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, 정부 정책방향 및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, 각계 전문가의 강의 및 종합토론 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.

연찬회 행사는 국토해양부, 제주특별자치도, 협회 회장단 및 회원(사) 등 각 단체 대표 총 13인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 테이프 컷팅식을 시작으로 공식 막을 올렸다. 곧이어 진행된 공식 개회식에서는 우리협회 김창세 회장의 개회사와 제주특별자치도 황인평 환경부지사(1차)



및 서귀포시 김대훈 부시장(2차)의 축사, 국토해양부 장만석 건설수자원 정책실장(1차) 및 정병윤 수자원정책관(2차)의 치사가 있었으며, 이어 진행된 2010 하천업무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사상최대 포상규모인 국토해양부장관표창 20개 기관·개인과 한국하천협회장표창 11인에 대한 포상이 수여되었다.

이어서 진행된 본격적인 주제발표에서는, 최근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우리의 하천에 대한 중요성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와의 관계를 함께 생각하기 위해, 국토해양부 및 4대강살리기추진 본부를 비롯한 소방방재청, 녹색성장위원회, 서울특별시 등으로 총 망라된 정부(지자체)정책발표와 산·학·연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의 다양한 발표를 통해, 향후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우리의 소중한 하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.

아울러 연찬회와 병행하여 부대행사로써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부스가 참여한 가운데 <친환경 하천 자재 및 공법 전시회>를 함께 개최함으로써 국내 하천관련 기술 및 자재에 대한 최신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

되는 한편, 하천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담아 새로운 하천문학의 지평을 펼쳐나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시행된 <제1회 하천문학상> 당선작 및 하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<제5회 하천사진공모전> 당선작에 대한 전시회가 마련되는 등 예년보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.

국토해양부와 한국하천협회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우리의 하천이 자연친화적인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서 국민의 높아진 삶의 질과 정서에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도록, 인간과 자연을 조화시키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화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자연중심의 환경지향형 하천 보전 및 복원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녹색성장을 통한 국토 창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『제6회 자연친화적 하천관리 연찬회』가 우리 하천인 모두의 축제로서 사상 최대 규모로 성료 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시는 회원(사)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, 협회는 앞으로 더욱 더 하천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하천분야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정진할 것임을 다짐한다. ●

